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주] 와인베스틸
강남 청담동 청담빌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주] 와인베스틸
부산시 사상구 경정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res.com>



[주] 동일스틸
부산시 사상구 학정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Vol. **91**
2026. 06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융·복합산업위원회 이경욱 위원장

푸른 바다, 큰 꿈

여고초 체조부 조예성 선수

Sports is Busan

2026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CONTENTS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6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91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6. 06 Vol. 91



열정의 부산체육



정상을 향한 질주



최고의 체육문화



Go! 우리 함께

04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융·복합산업위원회 이경욱 위원장
08	금빛 훈련일지 동의대학교 유도부
12	부산체육을 잇다 강서구체육회
16	푸른 바다, 큰 꿈 여고초 체조부 조예성 선수

20	Sports is Busan 2026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4	스포츠&테크놀로지 빅데이터가 설계하는 경기, 승부는 이미 시작됐다
28	스포츠&웰니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운동법
30	부산체육 DNA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다

34	스포츠 기자단 -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팬싱 단체전 - 2026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38	종목 소개 유도
42	스포츠&컬처 6월 호국보훈의 달, 부산의 역사 공간을 따라 걷다

44	BSC 뉴스 -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식 개최 -제21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48	회원단체 소식
52	센터 info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56	부산체육 퀴즈

사람과 ————— 사람을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믿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융·복합산업위원회 이경욱 위원장

이경욱 위원장은 오랫동안 체육계 발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행자로,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사회활동가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지난 4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스포츠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이라 믿기에,
사람 중심의 스포츠·복지도시 부산을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부산 체육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군을 자처하다

이경욱 위원장은 오랜 세월 지역사회 체육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몸소 앞장서 왔다. 2008년 부산광역시 농구협회 회장직을 시작으로 2016년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2020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운영위원회 위원, 2023년 부산광역시체육회 미래발전위원장 역할 등을 맡으며 체육계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식견을 쌓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건강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그는 지난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융·복합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지속 가능한 체육계 발전을 위한 소명을 다하고 있다.

➤ “2000년대에 지역 체육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체육계 발전이나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당시 농구와 관련한 체육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인연

으로 처음 협회에 발을 들이게 됐죠. 이후부터 부산시체육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지금은 체육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체육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로서, 종합 광고·마케팅 전문기업 (주)참콤을 운영하는 목직인 기업가로서 그의 하루는 빈틈없이 바쁘다. 이처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평소 사람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두터운 그의 성정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 만난 체육인들과 소통하며 지역 체육 인프라를 다져온 시간 역시 빠뜨릴 수 없다.

➤ “생활체육과 장애인 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의 체육인들을 만났습니다. 농구협회 회장 시절에는 관련 대회,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서 시민들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고자 애썼지요. 부산시 체육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체육이 운동을 넘어 지역경제, 문화, 복지와 연결되는 미래산업이란 생각을 갖게 되어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던 기억도 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 그는 지역사회와 체육계 사이를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자처하며 보람찬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체육활동이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자산이라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를 전파하다

지난 4월 20일, 이경욱 위원장에게 뜻깊은 순간이 찾아왔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복지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한 것이다. 이는 평소 체육계 발전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시간에 대한 박수이자 격려이기에 그는 다시 한 번 나눔과 봉사 실천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국민훈장 수훈은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장애인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의 격려가 담겨 더 소중한 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진심을 다해야겠지요.”

그는 현재 부산국제장애인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1995년 자원봉사자로 부산국제장애인협회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는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는 열세 살이던 초등학생 시절, 구덕수원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친구들과 남포동 지하철도에서 수재의연금 모금에 나섰고 이를 언론사에 전달했던 일이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던 옛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체육과 복지 활동을 함께 하면서 결국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건 작은 관심과 실천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축적되다 보니 이제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체육, 복지 분야뿐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제 역할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계속 살피게 되고요.”

이는 평소 기업 운영을 단순히 경영 성과를 이루는 것을 넘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책임을 나누는 일이라 생각하는 삶의 철학과 궤를 나란히 한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산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청년들은 도전하며, 어르신들은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는 포용의 환경. 이것이 그가 그리는 이상적인 미래 부산의 모습이다.

해양·관광·문화가 어울린

부산체육의 미래를 꿈꾸다

체육계에 발을 들인지도 어언 20여 년. 그간 다양한 형태로 부산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온 이경욱 위원장은 참여 초기와 비교해 체육을 향유하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음을 체감한다. 과거 엘리트 체육 중심 구조에서 이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더욱 확장된 것이다. 체육의 역할에 대한 위상 또한 높아졌다. 지난해 부산은 기존 문화체육국을 체육국으로 분리·출범했다. 체육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국 시도 중 부산이 최초로, 앞으로 생활체육 천국 도시,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부산의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생활체육 참여인구가 늘고 다양한 체육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역시 크게 확대됐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건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은 스포츠 특화 도시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부산체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부산은 해양과 관광, 문화 등의 자원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시다. 따라서 그는 스포츠융·복합산업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와 미래산업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시작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체육이 시민들에게 건강과 용기, 그리고 화합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해낼 때 비로소 그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 ‘함께 가는 삶’, ‘좋은 유산을 남기는 삶’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며, 지역에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체육계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매트 위에서 만들어가는 성장과 도전

동의대학교 유도부

柔道

오후 6시, 동의대학교 체육관 2층으로 유도부 선수들의 힘찬 발걸음이 이어진다. 매일 저녁 시작되는 기술 훈련을 위해서다. 한편에서는 스트레칭으로 가쁜 몸을 풀고, 반대편에서는 도복을 맞잡은 채 업어치기 기술을 반복 연습하는 훈련 장면이 펼쳐진다. 매트 위에서 동고동락하며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동의대학교 유도부를 만났다.



유도부의 승리를 이끄는 온화한 리더십

동의대학교 유도부가 첫 신입생을 맞이한 건 2002년이다. 이듬해 창단식을 거쳐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대회 출전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21회 우승을 거머쥐며 위풍당당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간 부원들의 노력과 성장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황인수 감독의 교육관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유도부 감독으로 부임한 지 벌써 10여 년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선수들을 가르쳤는데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강인한 친구들이죠? 그게 우리 유도부만의 강점입니다. 물론 선수마다 어려운 순간을 넘길 때도 있죠. 제 역할은 그럴 때 개입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선수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슬럼프를 겪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상황을 잘 파악해서 각자에 맞는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엔 기다려 주기도 하고요.”

그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획득해 실업팀으로 입단하거나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에겐 감독뿐 아니라 교육자라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해서 제 몫을 잘 해내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다. 결국 훌륭한 선수이자 든직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그의 훈련지향점인 셈이다.

첫 유도 단체전 우승의 비결은 끈끈한 팀워크

황인수 감독의 섬세한 리더십 덕분일까. 동의대 유도부는 유독

단단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지난 2022년 첫 출전한 유도 단체전에서 단번에 우승을 차지한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울산에서 열린 ‘하계 전국 남·여 대학유도연맹전’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첫 단체전 출전이었지만 16강, 8강으로 올라가며 모두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죠. 결국은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승리해 최종 4:1로 우승했습니다. 개인전 성적도 좋아서 최우수 선수상도 우리 학교 선수가 수상했죠. 감독으로서 더없이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수상의 영광은 학생들뿐 아니라 그에게도 찾아왔다. 학생들의 높은 성적을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후로도 동의대 유도부는 2023 추계 전국대학연맹전 남자단체 우승, 2024~2025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 단체전 우승 등 단체전에서 굵직한 성과를 보여주며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들의 합이 빚어낸 값진 성과다.

국제무대 출전을 위한 뜨거운 노력

현재 동의대 유도부 인원은 총 서른 명이다. 이들의 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김민철 코치는 부원들에게 코치인 동시에 선배로서 그간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동의대 유도부를 졸업한 그는 이후 경상남도청 유도팀 소속 선수로 활약하다가, 올해부터 모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

“부상으로 은퇴하게 되면서 후배들의 기량 향상에 힘을 보태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모교 선수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지도자로서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수마다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장점은 최대한 부각하면서도 단점은 보완할 수 있을지가 요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는 요즘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국체육대회’로 이어지는 일정에 맞추어 훈련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의 경우,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청소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결정짓는 대회인 만큼 그의 각오 또한 남다르다.



김민철 코치

“매일 새벽 6시에 체력훈련을 시작하고, 수업이 끝나는 오후 6시엔 기술훈련에 집중합니다. 다행히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따라주고 있고, 점심시간에도



개별적으로 체력훈련을 할 정도로 열의가 높아서 기대가 높습니다.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부분은 ‘잡기’인데요, 상대의 도복을 유리한 위치에서 잡아야 상대방 선수를 메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경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최소화를 위한 깊은 고민

훈련만큼이나 김민철 코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의 건강과 부상관리다. 일단 부상이 발생하면 훈련은 물론 경기 출전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평소 선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어떤 훈련으로 부상을 최소화할지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부상관리는 기본 덕목입니다. 스스로 잘 관리해야겠지만 지도자로서 선수들에게 알려줘야 할 부분도 있죠. 어떻게 훈련해야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또 부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운동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지 같은 것들이요. 선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부상관리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상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은 결국 선수들을 향한 애정이 바탕일 터다. 매트를 넘어 지도자의 자리에 선 그는 이제 더 넓어진 시야로 선수들과 감독 사이를 잇는 소통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는 선수들과 나이 차도 크지 않고, 함께 훈련하는 시간도 많아서 선수들이 부담 없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 선수들이라 감독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자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좋은 분이라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를 넘어 얻은 값진 메달

-81kg급 김수현 선수는 현재 유도부의 주장으로 단원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수로서의 특기는 한 번 상대의 도복을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강한 근성. TV 속 유도선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에 마음이 움직여 유도에 발을 들인 그는 취미를 전공으로 발전시키며 동의대 유도부에 진학했다. 이후 ‘2023 제주컵 국제유도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김수현 선수

“저에게는 뜻깊은 대회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선수를 처음으로 이긴 대회거든요. 시합 때 이기고 나서 갑자기 우는 선수들을 볼 때 이해가 잘 안됐는데, 이날 경기가 끝나고 울컥하더라고요. 제 유도 인생에선 손에 꼽는 한 장면이에요. 이후부터는 경기에서 아무리 강한 선수를 만나도 긴장이 덜 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값진 결과를 얻기까지 그의 노력은 뜨거웠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훈련에 매진했고 스스로 부족하거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훈련이 있을 때

는 이를 보완하는 훈련에 몰입했다. 최근에는 로프 등반, 파워클린(Power Clean) 같은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에 집중한다.

“유도에서 -81kg은 중간체급이거든요. 경량급의 빠른 스피드와 중량급의 힘, 둘 다 갖추고 있어야 해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해서 아침, 점심엔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저녁엔 기술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목표는 후회 없는 유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졸업 앞둔 그에게 주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길 물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당하지 않게 조심해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유도 생활 합시다!”

부전자전으로 이어지는 유도인의 길

-66kg급 이승재 선수는 유도선수였던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유도의 세계에 입문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아버지를 따라 유도 동작을 흉내 내던 그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

본격적으로 유도를 시작하게 됐고 올해로 유도 경력 15년 차에 도달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유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 영향으로 동생과 저 둘 다 유도를 전공하게 됐고요. 가족이 모이면 유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서로 조연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경기는 2023년 대학 입학 직후 출전한 ‘춘계대학유도연맹전’이다. 고3 때 부상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은 탓에 시합 출전은 고사하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던 그는 꾸준한 재활과 노력으로 회복에 성공해 결국 남자대학부 -60kg급 개인전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 성과는 계속되고 있다. 2024년 개최된 ‘제28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대학부 -66kg급 개인전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4월 개최된 ‘제17회 청풍기전국유도대회’에서도 개인전 2위에 오른 것이다.

“요즘은 탄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드리프트, 파워클린, 점프스쿼트 같은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발다리나 엮어치기 같은 기술을 걸 때 순간적으로 힘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계속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그가 이루고 싶은 바램은 하나다. 올 하반기 출전 예정인 경기에서 꼭 우승해 팀에 승리의 메달을 안기는 것. 그것이 그간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안팎으로 애써준 사 람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한다.

“남은 대회에서 승리하는 것이 감독님, 코치님께 할 수 있는 감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 짓고, 원하는 실업팀으로 입단하고 싶습니다!”



이승재 선수

차곡차곡 쌓아온 신뢰로 이룬 생활체육 활성화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체육회

스포츠가 일상이 된 강서구가 있기까지 강서구체육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강서구 체육회는 상호 신뢰와 투명 경영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금도 강서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으며,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Q 강서구체육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영위’라는 슬로건 아래 16만여 명에 이르는 강서구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스포츠의 메카로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체육회는 김재업 회장과 8명의 부회장 및 27명의 이사, 정현교 사무국장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강서구 생활체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발로 뛰고 있으며, 9개의 동 체육회와 32개 회원종목단체(정회원 17개 종목, 준회원 12개 종목, 인정단체 3개 종목), 249개 클럽, 9,7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입니다.

Q 강서구체육회가 개최하는 대회,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파크골프, 축구 등 단일 종목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체육회를 대표하는 대회로는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강서노인운동회’,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는 매년 1,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명지 다목적 인조 잔디 운동장 외 10개의 경기장에서 검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구, 볼링, 유도, 족구, 축구, 탁구, 풋살(여성), 플라이디스크 총 11개 종목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강서노인운동회는 강서구 소재 163개 경로당, 청년회 및 부녀회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이 경쟁하는 그라운드골프대회의 경우, 강서구에서 생산하는 햅쌀과 친환경 농산물이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주





인시설 등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9개 동 체육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돈독히 유지하는 일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Q 구민분들과 회원단체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강서구민, 최강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과 공존, 공정성 확보, 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천국 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체육회로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체육회 활동에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회원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저 지역사회를 알리는 의미 있는 대회로 꼽힙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여성 풋살 교실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강서구민 대상 25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운영 중이며, ‘G.S.W FS(강서우먼FS)’라는 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공을 만져보거나 팀 스포츠를 경험한 적 없던 평균 연령 40대의 여성들이 주 3회 하루 2시간씩 꾸준히 운동한 결과, 풋살에 대한 이해도와 볼을 다루는 기술이 웬만한 남성을 뛰어넘습니다.

Q 강서구체육회의 대표적인 회원단체를 소개해 주세요.

체조협회와 배구협회가 있습니다. 체조협회는 2022년, 2023년,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체조대회에 부산 대표로 출전하여 어르신부 생활건강체조분야에서 우승하였고, 2024년 어르신체육대회, 2025년 여성체육대회, 2026년 어르신체육대회에 강서구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하는 등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배구협회는 배구 종목 불모지였던 강서구에서 여성 동호인들이 뜻을 모아 출범하였고, 2023년에 남녀 혼성 협회가 되었습니다. 강서구민에게 배구 종목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 및 전국 배구대회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실로 2025년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강서구체육회와 배구협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Q 강서구체육회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도농복합 신도시인 강서구는 대저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에코델타시티 등 자연 친화적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서구체육회는 강서구로부터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 21개(축구장 4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풋살장 6면, 농구장 5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행정직원 외 현장관리직원을 채용하여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새롭게 유입되는 동호인이 많고, 여기에 발맞춰 아이스링크장과 제2국민체육센터 등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일부 금액을 회원종목단체 및 기타 기관들의 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강서구체육회가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스포츠 메카 도시 강서구민 모두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대회를 지원하며, 100세 시대를 향한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체육회 회장 김재업**입니다.
2009년부터 4년간 강서구생활체육회 자문위원으로, 2010년부터 6년간 강서구 배구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2020년부터 민선 1기, 2기를 연임하였습니다.
강서구체육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활기찬 21세기 글로벌 스포츠 메카 도시, 강서’와 ‘신뢰와 존중, 화합으로 발전하는 강서구체육회’를 목표로 회원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직을 맡는 동안 체육회 이사를 실무 봉사직으로 위촉하여 소속감과 책임감을 끌어냄으로써 체육회 활성화에 기여한 일과 종목단체 격려금 지원, 여성(주부)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 어르신 체육활동 참여 지원 등의 활동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배구연합회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배구 종목에 애정이 남다르기에 2025년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강서구체육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배구 종목이 우승하였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배구는 운동량이 많고 단합력이 필요해서

체력과 협동심을 기르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다년간 즐겨하는 스포츠는 골프입니다. 골프는 걷기 위주라 심혈관에 부담이 적고,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기능 향상, 사회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계획 중인 분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목적, 형태, 강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강서구체육회 임원과 회원단체는 ‘신뢰와 존중, 화합’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가겠습니다. 강서구민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100세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I INTERVIEW



네 번의 금빛 착지로 소년체전에 띄운 네 개의 꿈

여고초 체조부 조예성 선수

지난 5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종목에서 조예성 선수는 무려 네 개의 금메달을 달성했다. 초등부 개인종합·마루·철봉·링 종목을 휩쓸고,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했다. 뛰어난 실력에 바른 인성, 겸손함까지 다 가진 의젓한 체조 꿈나무를 만나보았다.

대를 건너 이어진 체조인의 꿈

조예성 선수는 자라면서 철봉 등을 활용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우연히 양학선 선수 등의 영상을 보게 되며 체조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고. 이후 체조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진 조예성 선수는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한체조협회에서 지원하는 K-짐스타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당시 K-짐스타를 담당하고 있던 여고초 여자팀 이유진 지도자는 단박에 조예성 선수의 재능을 알아챘고, 여고초 남자팀 류재화 지도자에게 소개했다. 이때부터 조예성 선수는 본격적으로 체조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예성 선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체조 선수가 된 것이 아직도 신기하다. 돌아가신 부친, 즉 조 선수의 외할아버지가 한때 체조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약주라도 한잔 하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체조 이야기를 항상 하셨다고. 부친은 조예성 선수가 태어나기 전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끼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꿈이 대를 건너 전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체전 준비의 큰 기반, 국토정중앙배 대회

여고초등학교 체조부에는 현재 남자 2명, 여자 6명의 선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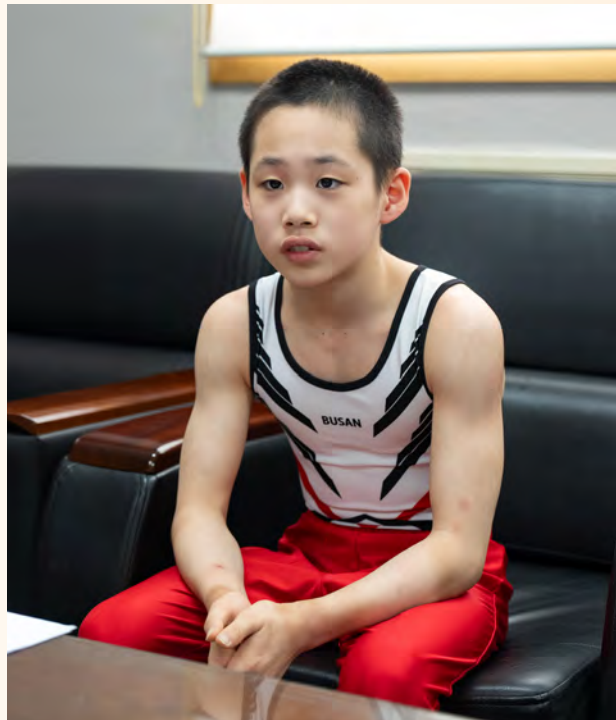
있다. 남자는 6종목, 여자는 4종목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류재화 지도자는 이에 맞추어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다.

“여고초 남자 체조부는 1984년 창단되었고, 소년체전 3연패 및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3연패를 달성하는 등 부산 체조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훈련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이곳 연제구 체조체육관에서 이루어지며, 대회를 앞두고는 부산체고 등에서 훈련하기도 한다. 훈련은 주로 평일 학교 방과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며,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평일 시작 시각을 앞당기거나 주말에도 이루어진다고.



“소년체전을 앞두고 전력 분석 등을 위해 4월에 열린 국토정중앙배 체조대회에 참가했어요. 돌이켜보니 해당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이 다른 선수 기량 파악이나 분위기 적응 등 소년체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성이가 기술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경기 전에 과도하게 긴장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년체전을 준비할 때는 기술이나 근력 훈련 등도 물론 비중 있게 했지만, 긴장을 풀어 주는 데 상당히 집중했습니다. 예성이가 지난해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도중에 포기하려는 위기도 잠시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많이 격려해주고, 예성이 스스로도 마음 다스리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긴장 푸는 데 집중한 소년체전

지난 5월 소년체전에서의 4관왕 달성은 조예성 선수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결과였다. 개인종합·마루·철봉·링 종목 금메달, 도마 종목 은메달, 최우수선수상까지 석권한 조예성 선수의 선전은 초등부 체조에 신선한 바람을 휘몰아치게 했다.

그러나 조 선수가 대회 전부터 4관왕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평소 꾸준한 훈련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 뿐, 이번 대회와 같은 성과는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결과였다.

“이번 체전에 참가하기 전에는 어떤 대회에서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지도자 선생님이 긴장 푸는 방법을 자주 말씀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고, 경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26년을 넘어 같은 자리에 선 사제(師弟)

류재화 지도자에게 조예성 선수의 체전 금메달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조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던 그 장소에 26년 전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성이 본인도 금메달 네 개를 걸었을 때 너무 기뻐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온몸에 전율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26년 전 부산에서 ‘제81회 전국체전’이 열렸을 때 저는 고등학생 선수였는데, 제가 운동하던 부산체고 체조부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국체전 우승을 했었죠. 26년 전 체전 시상대에서 제가 금메달을 받았고, 올해 예성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만나 금메달을 따니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사실 지난해 겨울부터 ‘내가 금메달을 받았던 장소에서 제자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시

에는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예성이가 금메달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제가 꿈꾸었던 장면이 점점 가까워져서 너무 신기했고, 지도자로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응원하며 성장하는 체조의 매력

조예성 선수는 6개 체조 종목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종목은 ‘링’이다. 링 종목은 2개의 줄과 링을 이용해 흔들기, 버티기, 휘돌기 동작을 구사하는 경기로, 상당한 상체 근력 및 밸런스가 요구된다. 공중에서 양팔을 곧게 편 상태로 링에 의지해 흔들기도 하고 물구나무서기도 하는 등 스윙과 힘 사이의 전환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아직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예성 선수의 양팔에 다부지게 자리 잡은 탄탄한 근육은 그간의 노력을 말해주는 듯하다.

“저는 좋아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체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해외 선수들의 동영상도 자주 보고 있어서 좋아하는 선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 한 명만 말하자면 일본 국가대표인 오카 신노스케 선수예요. 신노스케 선수는 꾸준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어요. 어떤 경기 영상을 봐도 확실히 다른 선수들과 자세가 달라서 본받을 점이 많아요.”

조예성 선수가 생각하는 체조의 큰 매력은 선수 간의 끈끈한 응원이다. 초등부 체조는 다른 종목에 비해 선수 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등부 체조 선수들이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경기할 때는 각자 집중하는 경쟁 관계지만, 경기 외 시간에는 학교 친구처럼 좋은 결과는 축하하고, 아쉬운 결과는 위로하기도 하며, 운동 외 일상 이야기도 종종 나눈다. 같은 팀 선수가 경기장에서 외치는 “뽕아”, “천천히” 등의 응원 소리도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같은 길을 걷는 선수들끼리 서로 응원하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은 조예성 선수가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다.

모범이 되는 선수로서의 꿈

5월에 소년체전이라는 큰 대회를 치렀기에 6월은 휴식기가 아닐까 싶었지만, 조예성 선수는 오는 7월에 열리는 ‘교보생명컵 꿈나



무 체육대회’를 열심히 준비 중이었다. 해당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선수는 교보생명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금, 멘토링 등 여러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조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라고.

“내년에는 여명중학교로 진학해서 체조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제가 중학생이 되면 여고초 남자 선수는 지금 5학년인 성진이 한 명밖에 없어서, 내년에 남자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명중 체조부 형들이 내년 단체전 메달을 위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고, 저도 좋은 형들을 만나 함께 운동하는 게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체조 선수로서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운동하는 선수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꿈 중 하나입니다.”

역대 최고 성적! 2026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4일간 부산 일원에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됐다. 부산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선수 822명과 임원 500명 등 총 1,322명이 참가해, 금메달 50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51개 등 총 13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참가 이래 최다 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메달 105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다로 기록된 성과를 다시 한 번 뛰어넘은 성적이다. 금메달 성과 또한 눈부시다. 선수단은 금메달 50개를 거머쥐며 대회 참가 이래 최다 메달과 최다 금메달을 동시에 경신했다. 부산체육의 경쟁력을 전국에 입증한 것이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7개 종목에서 총 10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며 역대 최다 다관왕 선수 배출에도 성공했다. 체조 종목에서는 2001년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 이후 25년 만에 조예성(여고초6) 선수가 남초부 4관왕에 올랐으며, 역도에서는 왕서영(부산체중3), 김민승(부산체중3) 선수가 각각 여중부, 남중부 3관왕을 차지했다. 롤러 종목에서는 최예윤(슈퍼비클럽6), 서지은(슈퍼비클럽5) 선수가 각각 여초부 2관왕을 달성했고, 이동윤(THE LAP6) 선수는 남초부 2관왕에 올랐다. 근대5종에서는 경로겸(부산체중3) 선수가 남중부 2관왕에 등극, 수영에서는 박채윤(모전초6) 선수가 남초부 2관왕을 기록했다. 이난아(부산체중3) 선수는 사이클 종목 여중부에서 2관왕을, 최서진

(신곡중1) 선수는 에어로빅합합 남중부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부산 선수단의 선전을 이끌었다. 단체 종목에서는 배구 남초부(금명초)가 2017년 창단 이후 첫 우승을 거뒀으며, 여초부(수정초)도 금메달을 획득해 참가 이래 초등부 최초 동반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농구, 야구, 핸드볼 종목에서는 각각 여중부(동주여중), 남초부(수영초), 남초부(성지초)가 동메달을 차지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각 종목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육상은 2003년 이후 최다인 금메달 5개를 획득했으며, 탁구에서는 동메달 4개, 펜싱은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를 차지하며 참가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한편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한 롤러가 1999년 정식 종목 채택 이후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최다 메달을 획득했으며, 근대5종 12세 이하부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스포츠클럽을 통해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부산체육중학교는 조정, 역도, 근대5종, 사이클 등에서 선전하며 역대 최다 메달 획득에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성과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최적화된 훈련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부산스포츠과학센터의 과학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에서 개최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한 부산 선수들에게 부산 시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원활한 연계 육성 성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2026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

① 메달 획득현황

▶ 총괄현황

총 139개	🥇 50개	🥈 38개	🥉 51개
--------	-------	-------	-------

※ 제54회(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총 105개(금30개, 은25개, 동50개)

※ 제53회(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총 93개(금16개, 은30개, 동47개)

② 선전종목

▶ 단체종목

구분	🥇 (2)	🥈 (0)	🥉 (3)
메달 획득현황	배구(남초 금명초, 여초 수정초)	-	농구(여중 동주여중), 야구(남초 수영초), 핸드볼(남초 성지초)

※ 4개 종목 (금2, 동3)

③ 다관왕

종목	종별	성명	소속	세부종목	메달	기록
체조	남초	조예성	여고초(6)	개인종합	금	73.225
				마루	금	13.075
				철봉	금	12.150
				링	금	11.350
근대5종	남중	경로겸	부산체중(3)	단체전	금	3,578
				개인전	금	916
역도	여중	왕서영	부산체중(3)	합계81kg급	금	199(대회신)
				인상81kg급	금	90(대회신)
				용상81kg급	금	109
	남중	김민승	부산체중(3)	합계61kg급	금	92
				인상61kg급	금	115
				용상61kg급	금	207
롤러	여초	최예윤	슈퍼비클럽(6)	500m+D	금	49.323
				3000m계주	금	04:33.946
	여초	서지은	슈퍼비클럽(5)	3000m계주	금	04:33.946
				3000m포인트	금	12
	남초	이동윤	THE LAP(6)	3000m계주	금	04:33.946
				1000m	금	01:38.4
수영	남초	박채윤	모전초(6)	배영50m	금	30.32
				배영100m	금	1:06.43
사이클	여중	이난아	부산체중(3)	2km단체	금	02:40.550
				1km개인추발	금	01:19.032
에어로빅 힙합	남중	최서진	신곡중(1)	개인전	금	15.400
				힙합단체	금	15.900

※ 10명(4관왕 1명, 3관왕 2명, 2관왕 7명)

※ 제54회(2025년) 다관왕 5명(2관왕 5명), 제53회(2024년) 다관왕 1명(2관왕 1명)

빅데이터가 설계하는 경기, 승부는 이미 시작됐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있다.
선수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장면.
예전에는 이 순간들을 '우연'이나 '감각'으로 설명하곤 했다.
하지만 과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우리가 화면 너머에서 마주하는 한 장면 안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가 겹겹이 쌓여 있다.
선수의 속도와 심박수, 움직임의 각도,
동료와의 거리, 상대의 압박 패턴까지.
스포츠는 더 이상 감각만으로
설명되는 세계가 아니라,
데이터로 읽히는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참고 자료 : 박서희, 「스포츠 빅데이터 & AI」 / 헤럴드경제, 박세정 기자, “축구 전략도 AI 데이터 분석으로”

스포츠,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은 스포츠 산업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감독의 경험과 선수의 감각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그 흐름을 함께 읽어내는 시대가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경기 내 실시간 분석 시스템이다. 현대 스포츠에서는 선수들의 움직임, 패스 성공률, 슈팅 위치, 이동 거리, 심박수 등 방대한 데이터가 경기 중 끊임없이 생성된다. AI는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제공한다.

축구에서는 선수들의 패스 연결 구조와 활동량을 분석해 효율적인 전술을 설계하고, 농구에서는 특정 위치에서의 슛 성공 확률을 계산해 공격 패턴을 최적화한다. 야구에서는 투수의 구속과 회전 수, 공의 궤적을 분석해 타자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운다. AI가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를 넘어 경기 흐름 자체를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수 교체 시점이나 수비 위치 조정, 세트피스(set piece)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등 역시 데이터가 제안하는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스포츠 현실은 AI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보조 역할을 넘어 실제 경기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시스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선수의 몸을 관리하는 새로운 언어, 데이터

스포츠 데이터는 경기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선수의 몸 상태를 관리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동 선수들은 항상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큰 부상은 선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과거 스포츠 의학은 부상 이후의 치료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예방 관리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상 위험관리(IRM, Injury Risk Management) 시스템'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상 위험관리 시스템은 특정 선수의 실시간 생체 데이터와 과거 부상 기록,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사례를 함께 분석해 부상 가능성을 예측한다. 선수의 심박수, 활동량,



피로도, 수면 상태, 신체 부위별 움직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로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선수는 훈련 강도를 낮추거나 출전 시간을 조절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는 ‘전자 퍼포먼스 추적 시스템(EPTS, Electronic Performance & Tracking System)’이다. EPTS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경기 중 선수들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약 400여 가지 이상의 정보를 기록한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유니폼 안에 착용했던 검은 조끼 역시 이러한 EPTS 장치 중 하나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록 장비를 넘어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피로 누적 상태까지 분석할 수 있어 부상 예방과 컨디션 관리에도 활용된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시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부터 이러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

위와 같은 변화는 전술 분석으로도 이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독일 대표팀이다. 당시 독일은 선수들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별 플레이스타일과 경기 패턴을 분석했다. 결과는 경기에 그대로 나타났다. 독일은 브라질과의 준결승에서 7대 1이라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데이터 분석의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독일 선수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데이터가 이미 브라질 선수들의 움직임과 패턴 흐름을 상당 부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AI가 바꾸는 스포츠 산업의 확장

AI와 빅데이터는 이제 경기 분석을 넘어 스포츠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해외 축



구에서는 AI가 직접 전술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F.C는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택틱AI(TacticAI)’를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코너킥 상황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움직임을 분석해 최적의 전술을 제안한다.

이뿐만 아니다. 선수 영입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스카우트 담당자가 직접 경기를 보며 선수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AI가 수십만 건의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 선수의 잠재력과 팀 적합성을 판단한다. 세비야 FC는 IBM과 협력해 생성형 AI 기반 스카우팅 시스템 ‘스카우트 어드바이저’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라 리가’는 수백 대의 카메라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경기 중 선수와 공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술 수행 능력과 경기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스포츠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는 ‘보는 산업’에서 ‘데이터로 해석되는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6월, 월드컵이 다시 불러오는 질문

세계 축구인의 축제인 FIFA 월드컵이 다시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월드컵은 언제나 기술 변화를 가장 먼저 시험하는 무대였다. 과거에는 ‘직감’과 ‘조직력’의 승부로 여겨졌던 경기들이 이제는 AI의 발전과 함께 스포츠 기술 변화의 파동을 읽어내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 경기장에서 보이는 모든 움직임이 데이터로 전환되고, 이 데이터가 다시 전략과 비즈니스로 이어지며 스포츠 산업 전체가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빅데이터는 결코 사람의 직관을 대체하지 않지만, 대신 더 정밀한 판단을 지원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스포츠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빅데이터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AI 기술이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는 지금, 앞으로는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스포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오늘의 한 걸음, 내일의 초록빛 변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운동법

매년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 일상 속 익숙한 ‘운동’을 떠올려 보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작은 습관만으로 환경보호에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구와 건강을 지키는 생활운동 습칙!

- ☐ 러닝 중간중간 쓰레기 줍기
- ☐ 등산 후 쓰레기 되가져오기
-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 ☐ 헬스장에 가는 대신 홈트레이닝 하기
- ☐ 전자 운동기구 사용 대신 맨몸운동 하기

운동과 환경보호를 한 번에! 플로깅 & 에코 트래킹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지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그린 스포츠가 주목받고 있다. 그린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환경보호까지 함께 실천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로깅’이 있다. 플로깅은 달리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반복적으로 몸을 숙이는 동작이 런지나 스쿼트와 비슷해 하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조깅이나 등산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 체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봉투 하나만 있으면 숲, 공원, 해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혼자서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러닝 열풍과 맞물려, 많은 기업들이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비슷한 운동으로는 ‘에코 트래킹’이 있다. 에코 트래킹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걷는 친환경 야외활동으로, 단순한 등산을 넘어 ‘가져온 것은 반드시 되가져 가기’, ‘자연물 채취 금지’, ‘지정된 탐방로 이용’ 등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산책이나 등산 중 발견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도 이루어져, 자연을 즐기면서 건강관리와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NO!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과 운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린 스포츠이다. 자동차와 달리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수록 대기오염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 라이딩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심혈관 건강 증진, 체중 관리 등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으로 꼽힌다.

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 건강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자전거 라이딩 시에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 및 이어폰 사용을 삼가야 한다. 또한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해 시야를 확보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주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출퇴근길이나 마트, 카페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탄소 절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사용 최소화! 홈트레이닝

가장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홈트레이닝이다. 집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헬스장과 비교했을 때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사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운동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요소만 더 신경 쓴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홈트레이닝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먼저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전기를 사용하는 운동 기구보다는 푸시업, 플랭크 등과 같은 맨몸 운동 중심으로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홈트레이닝 용품 가운데 일부 피트니스 밴드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재활용 매트나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 영상을 시청할 때도 TV나 대형 모니터 대신 스마트폰처럼 화면이 작은 기기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전력 소비와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운동 루틴을 충분히 익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한다면 환경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에는 막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를 통한 국제 협력, 경제와 기술의 자립 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K-팝, K-푸드 등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떨치며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게 되었는데,
수많은 K-컬처에 앞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체육’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의 땀과 열정은 세계인을 감동시켰으며, 그 안에서 부산체육인들의 활약 또한 눈부셨다.



양정모,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97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올림픽에 참가한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 이후 28년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서는 92개국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1개 종목 198개 경기가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수단 72명은 레슬링, 유도, 배구, 복싱, 사격 등 5개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레슬링, 유도, 배구 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따내며 종합순위 19위를 기록했다. 몬트리올 올림픽대회는 우리나라가 투기 종목에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보여준 무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뜻깊은 대회였다.

대한민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는 레슬링 종목의 양정모 선수이다. 부산 출신 양정모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와 용두산공원에 놀러 갔다가 인근에 자리한 레슬링 체육관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고, 레슬링의 매력에 빠져 운동을 시작했다. 동아대학교 체육과에 진학하며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한 그는 올림픽대회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과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많은 국제 대회에서 활약했다.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건 그보다 앞서 참가했던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안 게임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세계랭킹 1위였던 몽골 선수와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승리했던 기운이 올림픽대회까지 이어진 것이다.

참고 자료: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국제스포츠정보센터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 예비문화유산에 선정

양정모 선수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레슬링 페더급 자유형 종목 최강자로 전성기를 보낸 후, 레슬링 감독으로서 후진 양성에 힘쓰는 등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체육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메달 등 13점의 소장품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기증하였다.

기증한 소장품에는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금메달도 있었는데, 2025년에 이 메달이 국가유산청에서 선정하는 ‘예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문화유산이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선정하여 향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대회에서 처음 금메달을 딴 건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로, 마라톤 종목의 손기정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런데 베를린 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던 1936년은 일제강점기였고,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시상대에 선 손기정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삼켜야 했고, 그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지켜보았다. 이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설움을 보여주

는 한편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민족적 각성을 일으키며 항일 운동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1945년 마침내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올림픽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금메달은 민족의 아픔을 극복하고 얻은 성과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하형주, 아시아선수권 유도 종목 최초 금메달 획득

양정모 선수의 뒤를 이어 국위 선양한 부산의 간판선수를 꼽자면 유도 종목의 하형주 선수가 있다. 부산체육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 체육과를 나온 그는 1981년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유도 사상 최초로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유도연맹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1966년부터 시작해 1988년까지 약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다가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유도 종목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로 볼 수 있다. 그중 198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는 여성부 경기가 처음 도입된 대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도 레전드’ 하형주 선수가 헤성처럼 등장한 대회로 기억된다.

자카르타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 당시 만 19세였던 하형주 선수는 이 대회의 -95kg급 경기에서 은메달, 무제한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었다. 이때 그가 딴 금메달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도 종목에서 딴 첫 금메달이자, 유도 강국 일본과 겨룬 승부에서 얻은 메달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그는 같은 해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95kg급 동메달을 획득하고,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 그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에서 딴 금메달은 대한민국 유도 종목(-95kg급)의 첫 올림픽대회 금메달로, 우리나라 유도 종목 역사에 다시 한 번 한 획을 그게 된다.

이 외에도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를 끝으로 은퇴하기까지 수많은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하형주 선수는 대한민국 유도의 위상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 선정되었다. ‘스포츠 영웅’은 스포츠계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위 선양했거나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사람, 모든 스포츠인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스포츠인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명예제도다.

양정모, 하형주 선수 외에도 한국 최초의 유럽 축구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차범근 선수, 한국 여자 골프의 세계화를 이끈 박세리 선수,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진출자 박찬호 선수, ‘피겨 여왕’이라 불리며 세계 피겨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김연아 선수, 명실상부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등 오늘날 우리나라 체육인은 국제 무대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들의 값진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스포츠는 세대와 지역, 이념의 벽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지닌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낸 스포츠 영웅들의 헌신과 도전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끈끈한 팀워크로 값진 은메달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펜싱 단체전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정상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펜싱 종목에 출전한 영선중학교 선수들이 플뢰레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단체전에서 보여준 선수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은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대회에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영선중학교 선수들이 출전한 플뢰레 단체전 경기였다. 단체전 팀원 중 한 명인 영선중학교 3학년 전시우 선수는 앞서 진행된 5월 23일 경기에서 압도적인 집중력과 정교한 기술을 선보이며 플뢰레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의 뜨거운 열기는 영선중학교 선수들이 출격한 단체전 경기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단체전으로 진행된 만큼 경기장에서는 선수들 간의 두터운 신뢰와 연대가 빛을 발했다. 영선중학교 선수들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매 순간 끈질긴 승부욕을 발휘했다. 한 선수가 고전할 때면 벤치에 앉은 동료들과 지도자는 목이 터져라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불어넣었다. 실점의 아쉬움보다 다음 공격을 위한 격려가 먼저였고, 득점의 순간에는 한 팀으로 완벽하게 뭉친 모습을 보여주었다. 플뢰레 종목은 유효타 면이 상반신(몸통)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르고 정교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만큼, 경기장에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강호 경북체육중학교와 맞붙은 준준결승전은 이번 대회 최고의 명승부이

자 최대의 고비였다. 매 라운드 1점을 주면 1점을 곧바로 따라붙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며 경기장 내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대의 거센 공세에 밀려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영선중학교 선수들은 끈질긴 투혼으로 끝까지 경기를 사수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침내 승리를 따내는 극적인 드라마에, 현장의 부산 응원단은 물론 중립 관중들까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선수들의 성숙한 스포츠맨십 또한 빛을 발했다. 격렬한 공격을 주고 받다가도 경기가 끝나면 투구를 벗고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며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예의를 잊지 않았다. 소년체전은 메달의 색깔만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어린 선수들이 압박을 이겨내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자, 미래의 국가대표를 향한 첫걸음이다. 플뢰레 개인전 정상에 오른 전시우 선수를 비롯해 단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일궈내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영선중학교 유망주들의 값진 땀방울이 앞으로 대한민국 펜싱계를 더욱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해본다.

5/25 (09:00) 준준결승전	부산(영선중학교) VS 경북(경북체육중학교)	44:43 (승)
5/26 (11:40) 준결승전	부산(영선중학교) VS 대전(대전선발)	45:6 (승)
5/26 (15:40) 결승전	부산(영선중학교) VS 서울(서울선발)	33:45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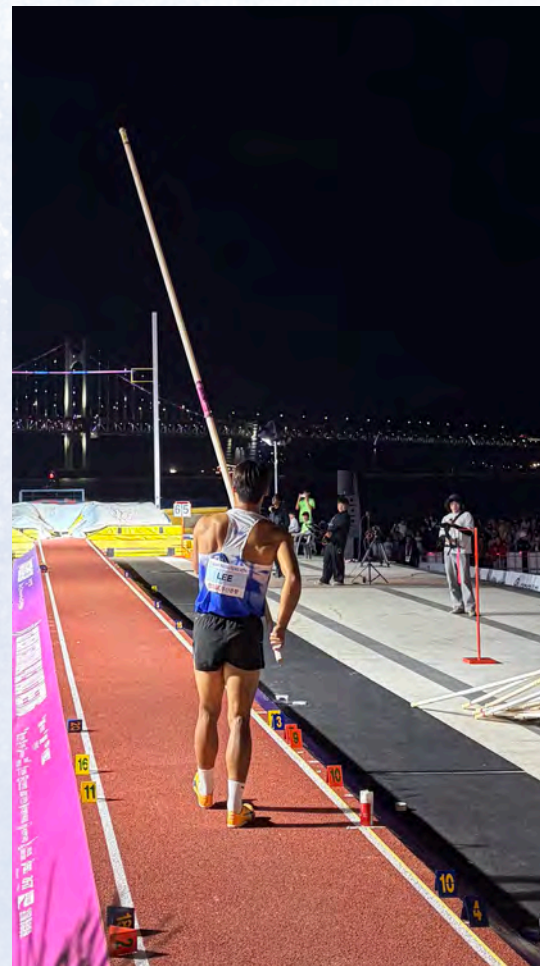
하늘을 향한 도전,

2026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이승빈



‘2026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지난 5월 30일 광안리 해변공원 특설경기장에서 개최됐다. 15개국 40여 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하늘 높이 솟은 바를 향한 도약과 기록 경신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이어졌다.

지난 5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공원 특설 경기장에서 ‘2026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육상연맹이 주관하였으며, 15개국 4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여자부와 남자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여자부는 오후 4시, 남자부는 오후 8시 10분에 각각 시작되어 광안리 해변을 배경으로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다.

장대높이뛰기는 선수들이 장대를 이용해 바를 넘는 육상 경기로, 각 높이마다 최대 세 번의 시도가 주어진다. 선수는 원하는 높이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한 높이에서 3회 연속 실패할 경우 탈락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높이를 넘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고, 기록이 같을 경우 실패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은 낮은 높이에서 도움닫기와 도약 동작을 반복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연습 과정이었음에도 선수들이 장대를 이용해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곧 펼쳐질 본 경기와 기록 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은 각자 선택한 높이에서 차례로 도전에 나섰다. 힘차게 도움닫기를 한 뒤 장대를 이용해 바를 넘는 순간마다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으며, 높이가 올라갈수록 경기장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됐다. 아슬아슬하게 바를 넘는 장면에서는 관중들의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성공적인 점프가 이어질 때마다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다. 한 관람객은 “선수들의 역동적인 점프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인상적이었다”며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경기를 보니 스포츠와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져 더욱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자부 경기에서는 미국의 토리아나 토마스가 4.55m를 넘어 우승을 차지했다. 카자흐스탄의 폴리나 이바노바와 인도네시아의 디바 레나타 자야디는 나란히 4.20m를 기록했으며, 시기 횡수에 따라 폴리나 이바노바가 2위, 디바 레나타 자야디가 3위에 올랐다. 이어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일본의 에지마 미사키가 5.60m를 넘어 우승을 차지했다. 태국의 팻사퐁 암사망은 같은 5.60m를 기록했으나 시기 횡수에서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다. 3위는 5.40m를 기록한 호주의 잭 다우니가 차지했다.

대회는 수준 높은 경기와 함께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민들은 경기장 안과 밖에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으며,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기를 관람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경품 행사가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참가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시민들이 육상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진 경기는 스포츠와 부산의 관광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국제 스포츠 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이 육상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며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제 육상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한판으로 × 승부를 가르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 스포츠, 유도

유도는 상대를 힘으로만 제압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상대의 움직임과 힘의 방향을 읽고, 그 흐름을 이용해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 스포츠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승부를 가르고, 절묘한 메치기 한 번이 한판으로 이어진다. 힘과 기술, 그리고 순간의 판단이 어우러지는 유도.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승리를 만들어내는 유도의 승부 세계를 살펴보자.



자료 출처: 대한유도회

유도의 역사

유도의 기원에 대한 설은 다양하다. 일본 유술*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는 한편, <일본서기> 등에 표현된 투기 모습이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모습과 일치하는 점 등을 미루어 한반도에서 전해진 투기술이 바탕이 됐다는 설도 있다.

1952년 창설된 국제유도연맹은 유도를 1882년 ‘가노 지고로’라는 일본인이 체계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는 ‘메치기’와 ‘굳히기’ 기술을 포박·낙법으로 개량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체련법, 수신법, 승부법 등으로 체계화했다. 이렇게 개량된 유술이 ‘유도’가 된 것이다.

이후 유도는 20세기 서구로 전파되며 국제 스포츠로 성장했다. 당시 다양한 국제대회가 개최되면서 유도의 위세 또한 높아졌다.

1956년 일본 도쿄에서 첫 세계유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됐으며,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이후 1986년에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유술: 유도의 모태가 된 일본의 옛 무술

한국의 유도

우리나라에 유도가 전파된 것은 1906년 ‘우치다’라는 일본인이 서울 명동에 유도장을 개장하면서부터다. 1909년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유도장이 개설되며 국내 유도 기반이 형성됐다. 이후 1945년 조선유도연맹이 정식 창설됐으며, 1948년 대한유도회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부터 우리나라는 꾸준히 메달권에 들어왔다.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한 김의태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고, 1967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는 박청삼, 김병식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수상했다. 1981년 네덜란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박종학 선수가 유도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품에 안으며 한국 유도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에서는 종주국인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유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일교포이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허미미’ 선수는 2024년 파리 올림픽대회에서 극적으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큰 화제가 됐다. 그의 활약은 유도를 향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부산 출신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1984년 LA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하형주 선수(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동메달을 따낸 조준호 등이 대표적이다.

유도의 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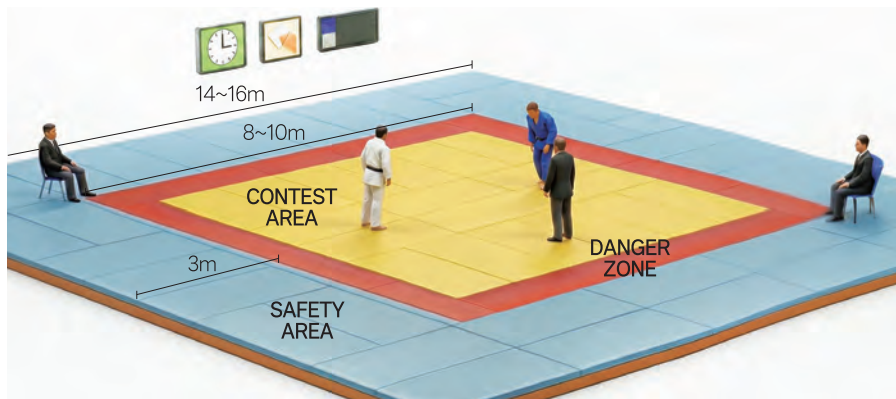
유도는 1964년까지 무체급으로 진행됐다. 체격 차이보다 기술과 원리를 중시하는 유도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유도는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 체급제를 도입했고,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부터 체급별 경기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에는 4개의 체급으로 나뉘었으나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거치며 7개 체급으로 늘었다. 이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여자 유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현재와 같이 총 15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었다.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는 -60kg급, -66kg급, -73kg급, -81kg급, -90kg급, -100kg급, +100kg급으로 나뉘고, 여자부는 -48kg급, -52kg급, -57kg급, -63kg급, -70kg급, -78kg급, +78kg급으로 나뉜다. 혼성 단체전은 남녀 3체급씩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른다.

유도의 경기장

유도 경기는 다다미(Tatami)라 불리는 매트 위에서 진행된다. 최소 14m×14m, 최대 16m×16m 규모로 조성되며 크게 위험지대와 안전

지대로 나뉜다. 위험지대는 매트
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계 구역으
로, 경기장 내 사각형으로 된 1m
폭 공간을 의미한다. 위험지대를
포함한 경기장 안쪽은 '장내'라고
하며, 장내는 최소 8m×8m에서
최대 10m×10m로 규정된다. 위
험지대 바깥은 '안전지대'로 구분
되며 폭은 3m 확보되어야 한다.



유도 기술

유도의 기술은 대표적으로 메치기와 굳히기가 있다.

메치기는 유도의 기본 기술로 선 자세에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린 뒤 던져 제압하는 대표적 유도 기술이다. 메치기는 몸의 자세에 따라 서서 하는 기술, 누우면서 하는 기술로 나뉜다. 더 자세하게는 손 기술, 발 기술, 허리 기술, 바로누우며메치기, 모로누우며메치기로 분류된다. 이 기술을 구사할 때는 3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데, 이는 기울이기, 지웃기, 걸기이다. 기울이기는 상대방을 잡고 기울여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단계, 지웃기는 기술을 걸기 위한 자세를 잡는 단계, 걸기는 기술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굳히기는 상대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는 기술이다. 크게 누르기, 조르기, 꺾기로 나뉜다. 상대를 위에서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누르기, 손이나 팔뚝으로 목을 제압하는 것을 조르기, 관절을 찢히거나 비트는 것을 꺾기라고 한다. 만약 제압에 성공하여 기술이 20초 이상 유지되거나 상대가 항복(탭)을 하면 승패가 결정된다. 단, 굳히기 기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굳히기 기술이 사용 가능한 경우

- ▶ 한 선수가 메치기로 어떤 득점 결과를 얻고, 굳히기 기술로 전환하여 계속 공격할 때
- ▶ 메치기 기술이 성공하지는 않았으나 넘어진 상대를 굳히기 기술로 전환하여 공격할 때
- ▶ 상대가 메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즉시 굳히기 기술로 공격할 때
- ▶ 조르기 또는 꺾기 기술을 적용하여 상당한 효력을 얻을 수 있을 때
- ▶ 메치기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능숙한 동작으로 상대를 넘어뜨렸을 때
- ▶ 이밖에 한 선수가 넘어졌거나 넘어질 때

두 기술 모두 중요하지만, 유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낙법이다. 낙법은 유도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기술로, 넘어질 때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켜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유도에서는 “먼저 넘어지는 법을 알아야 상대를 메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낙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기 방법

경기는 청색 유도복 선수와 백색 유도복 선수가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시간은 대회 규정에 따라 15세 이하부(남중부)·18세 이하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는 4분, 12세 이하부(초등부)·15세 이하부(여중부)는 3분, 생활체육 동호인부는 2분으로 운영되며, 선수는 경기 종료 후 다음 경기를 위해 휴식을 취하게 된다.

승부는 한판과 절반, 유효로 구분된다. 한판을 얻으면 즉시 승리하며, 절반은 누적 점수로 인정된다. 한판은 일본식 한자어 一本(Ippon, 잇폰)에서 유래한 용어다. 가장 높은 득점으

로 등 전체가 당도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판이 선언되면 즉시 경기가 종료된다.

절반은 한판의 반이라는 뜻으로, 90도 이상의 각도로 측면 전체가 달거나 한쪽 어깨와 등 상부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경기에서 두 번의 절반을 얻을 시, ‘절반을 합해서 한판’으로 선언한다.

본 경기 종료 시, 득점이 없거나 동점인 경우 경기는 골든 스코어(Golden Score)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골든 스코어 경기는 본 경기에 양 선수가 획득한 득점 및 벌점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진행된다.

한판, 절반, 유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판이 선언되는 경우

- ▶ 선수가 상대를 등으로 메치고, 기술을 적용하거나 상대의 공격 기술을 반격하여 상당한 능력과 최대 효율로 수행했을 때
- ▶ 한 선수가 누르기로 상대 선수를 제압하여, “누르기!” 선언 이후 20초 동안 상대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 ▶ 한 선수가 손 또는 발로 두 번 이상 두드리거나 “기권(Maitta!)”을 선언하여 항복하는 경우(일반적으로 누르기, 조르기, 꺾기에 의해 발생)
- ▶ 한 선수가 누르기, 조르기, 또는 꺾기에 의해 의식을 잃는 경우
- ▶ (동등한 가치) 한 선수에게 ‘반칙패’가 선언되면 상대선수에게 ‘한판승’ 선언

절반이 선언되는 경우

- ▶ 한쪽 어깨 축 기준 90도 이상으로 착지하였으나, 등으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
- ▶ 팔꿈치가 밖으로 빠져 있더라도 몸의 측면 전체가 착지하면 득점 부여(어깨의 위치만을 기준으로 판단)
- ▶ 한판의 네 가지 기준(속도, 힘, 등으로의 낙하, 착지 종료 시점까지의 숙련된 제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
- ▶ 한 선수가 굳히기로 한 상대를 제압하여 ‘누르기’가 선언된 후 10초 이상 20초 미만 동안 누르고 있을 때

유효가 선언되는 경우

- ▶ 측면 착지(90도) 또는 전방 방향으로 90도 이상 착지한 경우
- ▶ 등 위쪽으로 착지한 경우
- ▶ 어깨 축을 기준으로 측면과 한쪽 팔꿈치 또는 한쪽 손이 접촉하여 착지한 경우
- ▶ 양쪽 둔부로 착지하되, 전방으로 약 90도에 가까운 경우 또는 후방으로 90도 이상인 경우(유효 및 무득점의 경계 상황 포함)
- ▶ 한쪽 둔부로 착지한 경우(팔꿈치 또는 팔이 다다미에 닿거나 닿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
- ▶ 목으로 착지한 경우
- ▶ 한 선수가 굳히기로 한 상대를 제압하여 ‘누르기’가 선언된 후 5초 이상 10초 미만 동안 누르고 있을 때

선수가 경기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유도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벌점인 ‘지도’를 받는다. 지도 3개가 쌓이면 반칙패로 패하게 된다. 지도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도를 받는 경우

- ▶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상대를 잡지 않는 행위
- ▶ 선 자세에서 5초 이상 극단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는 행위
- ▶ 상대를 메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장 공격(공격 의사가 없으면서도 공격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
- ▶ 공격을 되치거나 방어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5초 이상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 등

곳곳에 남겨진 평화의 흔적

6월 호국보훈의 달,
부산의 역사 공간을 따라 걷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들이를 가고,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일상.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평화로운 풍경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평화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역사 속 수많은 이들
이 숭고한 희생을 치러낸 덕에 평화가 피어났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산 속
역사 공간을 따라가 본다.



충렬사

임진왜란, 충절과 항전의 역사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갑작스러운 침공에 조선은 큰 혼란을 겪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일어난 백성들의 저항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희생은 지금까지도 역사로 남아있다. 그때의 기록은 부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장소가 충렬사다. 충렬사

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싸우다 순국한 부산 지역 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매년 5월 25일, 이들의 호국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이 거행되고 있다. 단체 관람 시 기념관에서 문화해설도 제공된다.

더 많은 유물을 관람하고 싶다면 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을 찾으면 된다. 이곳에는 복원 및 복제 유물 23종 546점이 보관 및 전시돼 있어 당시의 상황을 보다



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래읍성 모형, 트릭아트 포토존, VR체험존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강제동원의 기록

전 세계 열강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던 20세기 초, 한반도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를 맞닥뜨렸다. 국권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까지 수많은 독립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이 시기 기억을 담고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백산기념관이다.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고 지지했던 백산 안희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내부로 들어서면 독립운동 후원자로서, 직접 투쟁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활약상을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유물과 기록이 전시되어 있어 독립운동 당시 그의 활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일반 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곳이다. 당시 이들이 실제 보유했던 편지, 작업화 등 생활 흔적이 전시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온라인 전시 형태로도 관람할 수 있다.



(위) 백산기념관, (아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 임시수도기념관, (아래) 유엔평화기념관

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의 시간

6·25전쟁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역할을 수행한 도시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정부 기능을 유지했던 부산의 역사는 오늘날 임시수도기념관에 남아있다. 이곳은 6·25전쟁 당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기도 했던 공간으로, 내부로 들어서면 당대 생활공간과 피란민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유엔군의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도 있다. 유엔평화기념관은 타국의 평화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상설·기획·야외 전시를 통해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 공간도 함께 마련돼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 위에 존재한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부산 곳곳에 남겨진 역사 공간을 따라 걸으며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식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과 공유 및 결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5월 21일 농심호텔에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선수단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해단식은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부산선수단의 활약을 공유하고 종목별 유공자를 격

려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육 가족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내년 부산 개최가 확정된 '202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체육 동호인들의 분위기 고취와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고자 전년 대비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했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총 36개 종목, 1,42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동호인 참가 기록을 세웠으며, 당구 종목 종합 우승을 비롯해 국

학기공·체조·축구 종합 준우승, 롤러·우슈·육상·에어로빅·합합·수중핀수영·태권도 종합 3위 등 총 10개 종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부산 생활체육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해단식에서는 종합 입상 종목 회장 및 실무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와 함께 최고령 및 최연소 참가자 남녀 선수에 대한 특별상 시상이 진행되어 생활체육 세대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체조 생활댄스체조 부문 8연패를 달성한 부산여자대학교 팀의 축하공연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감동과 화합의 시간을 선사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부산선수단이 참가해 우수한 성과와 함께 생활체육 참여 열기를 전국에 보여준 뜻깊은 대회였다”며 “다가오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또한 시민과 동호인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체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제21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 9개 종목 1,500여 명 참가

부산 어르신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21회 어르신체육대회’가 지난 5월 9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주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군 동호인 간 교류와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는 부산 지역 16개 구·군을 대표하는 어르신 동호인 1,500여 명이 참가해 국학기공,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체조 등 총 9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특히 이번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 어르신은 게이트볼

종목에 참가한 1934년생 정은조 어르신으로, 올해 93세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을 즐기며 건강한 생활체육 참여의 모범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는 승패를 넘어 건강과 우정을 나누는 생활체육 축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종목별 경기장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대회를 이어갔다.

또한 16개 구·군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수단 구성으로 많은 동호인이 참여하였으며, 주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원활

하게 마무리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어르신체육대회가 어르신 동호인들의 건강한 활력과 구·군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1위	2위	3위	
국학기공	연제구	동구	서구	금정구
체조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서구
게이트볼	중구(1조)	해운대구(반송)	금정구(금샘)	사하구(을숙도)
그라운드골프	남구	사상구	동래구	금정구
배드민턴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축구	기장군	동래구	영도구	연제구
탁구	연제구	해운대구	남구	금정구
테니스	연제구	남구	해운대구	북구
파크골프	동래구	강서구	사상구	해운대구





중구체육회

제21회 어르신체육대회 게이트볼 우승

지난 5월 9일(토), '제21회 어르신체육대회'가 사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8개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16개 구·군을 대표해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중구에서는 총 4팀, 53명이 참가하여 게이트볼 우승의 쾌거를 거두며 부산 게이트볼 강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서구게이트볼협회 전국게이트볼대회 D그룹 우승

부산광역시서구게이트볼협회(팀명 구덕)는 지난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애항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에서 D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96개 팀, 9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부산 서구 대표 선수들은 오랜 시간 다져온 팀워크를 바탕으로 우승을 거뒀다. 이홍중 서구게이트볼협회장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체육회

부산진구 여성축구·풋살교실 친선경기 진행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5월 21일(목) 황령산레포츠공원 풋살장에서 2026년 부산진구 여성축구·풋살교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친선경기를 진행했다. 이번 경기는 축구(오후반), 풋살(오후반) 참가자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경기를 통해 함께 뛰고 응원하며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부산광역시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래구체육회

제8회 동래구 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 개최

'제8회 동래구 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가 지난 5월 4일(월)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종합 우승은 해담, 준우승은 2타, 3위는 셋별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동래구 파크골프협회는 앞으로도 파크골프 활성화와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구군체육회 소식



동구체육회

주5일제 실천광장 가족캠프 개최

동구체육회는 5월 31일(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클럽디오아시스에서 지역 주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주5일제 실천광장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13가족, 총 43명이 참가해 물놀이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가족 중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동구체육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영도구체육회

제22회 영도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테니스대회 개최

부산 영도구 테니스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선을 다지는 '제22회 영도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테니스대회'가 지난 5월 16일(토) 동삼테니스장을 비롯한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영도구 지역 10개 클럽 소속 테니스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해 클럽 간 경기를 펼쳤으며, 참가자들은 경기에서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영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구체육회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임원(협회장) 경주 탐방 실시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는 5월 10일(일) 경주 일원에서 '2026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임원(협회장) 경주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남구체육회 임원진 및 남구 회원종목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해 체육회 발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경주의 주요 역사·문화 명소를 탐방하며 상호 유대를 강화했으며, 이후 남구체육회의 운영 방향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미래 비전과 주요사업 추진 의지를 다짐했다.



북구체육회

제4회 부민병원장배 & 북구 배드민턴협회장기 춘계대회 개최

지난 5월 3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26 제4회 부민병원장배 & 북구 배드민턴협회장기 춘계대회'가 개최됐다.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은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는 한편 클럽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결과 참좋은화신클럽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신명클럽이 준우승, 백산클럽이 3위, 명천클럽이 4위를 기록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4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회장배**스쿼시 새내기대회 개최**

지난 5월 16일(토) 그래비티집에서 '제4회 해운대구스쿼시 연맹회장배 스쿼시 새내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영곤 해운대구체육회장 등을 포함한 여러 내빈이 참석했으며, 경기에는 50여 명의 스쿼시 동호인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 참가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한편 동호활동에 대한 의욕이 증진됐다는 소감을 남겼다.



사하구체육회

사하구체육회장기 겸 제25회 사하구배드민턴협회장기**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난 4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26 사하구체육회장기 겸 사하구배드민턴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사하구 관내 여러 클럽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남녀 복식, 혼합 복식 등 각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코트 위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친 참가자들은 경쟁과 화합, 우정을 나누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의미를 더했다.



연제구체육회

제12회 연제구롤러스포츠연맹협회장배 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가 지난 5월 17일(일) 울산 문수 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2026년 제12회 연제구롤러스포츠연맹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3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으며, 참가자들은 열띤 경기를 펼치며 동호인 간 유대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체육회

2026 제30회 수영구테니스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5월 17일(일) 해운대수목원테니스장에서 '2026 제30회 수영구테니스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됐다. 동호인 2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환영사와 주요 내빈 축사, 선수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경쟁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의미를 더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제30회 금정구테니스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5월 10일(일), 스포원테니스장 외 4곳에서 '제30회 금정구테니스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됐다. 대회에는 지역 테니스 동호인 400여 명이 참여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금정구테니스협회와 금정구체육회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대회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간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서구체육회

제7회 부산강서구 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5월 11일(월)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부산강서구 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됐다.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 6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클럽 간 친목을 다졌다. 이 성두 강서구파크골프협회장은 “파크골프가 구민들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동호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상구체육회

2026 사상구청장배 및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사상구체육회가 주관하고 사상구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한 '2026 사상구청장배 및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5월 17일(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해 남자복식, 여자복식 등 종목별 경기에서 기량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특히 사상구선수단은 '어르신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대회는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and 지역 공동체 화합의 의미를 더하며 마무리됐다.



기장군체육회

기장군 철마파크골프실내스크린장 개장

기장군은 지난 5월 12일(화) 철마파크골프실내스크린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해당 시설은 기후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전천후 체육 인프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식에는 체육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01

부산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 신설 프로그램(서플댄스) 개강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5월 신규 프로그램 ‘서플댄스’를 개강했다. 해당 수업은 프로그램 사전 홍보를 통해 3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공개수업 형태로 진행됐다. 정원 30명은 모집 첫날에 마감돼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른 마감으로 수업 등록을 놓친 한 회원은 “배우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등록을 못 해 너무 아쉽고, 다음 달에는 꼭 등록에 성공해서 신나게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2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하절기 수영장 수질·위생관리 강화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수영장 수질 및 여과·소독 설비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한편,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공간에 대한 청결 관리를 집중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입수 전 샤워와 수모 착용, 질서 있는 시설 이용 등 기본 수칙 안내를 통해 이용자와 함께하는 건강한 수영장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수영장 이용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위생관리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3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집중 안전점검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5월 27일(수) 체육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육시설 정기·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점검은 시설, 소방, 전기 등 주요 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방설비 작동 여부, 전기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4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시설 정밀안전점검 실시

지난 5월 20일(수)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내부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해당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점검으로 철골 구조물 상태, 주각보 상태, 볼트 체결여부 등 다양한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테니스장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05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실내빙상장, 어린이날 이벤트 개최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5월 5일(화) 어린이날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키다리 뱀에로 아저씨의 신나는 요술풍선쇼’와 피겨선수 22명이 참여한 ‘아이스 판타지쇼’가 펼쳐졌으며, 현장에서는 솜사탕 및 팝콘 증정 행사까지 더해져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었다. 행사 후반에는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돼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06

신평장림체육관



신평장림체육관, 샤워장 내 화장실 출입문 교체

신평장림체육관은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층 샤워장 내 화장실 출입문 교체 공사를 실시했다. 기존 출입문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새 출입문으로 교체했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점검·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01

부산광역시육상연맹

부산 육상, 전국소년체전서 23년 만에 최다 금메달 성과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에 참여한 부산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최다 금메달 성과를 거뒀다.

남자 초등부 포환던지기에서는 부산토성초 손현준 선수가 16m87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타이 기록을 세웠다. 여자 중등부 창던지기에서는 동향중 정채윤 선수가 45m76으로 부산 육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중등부 원반던지기에서는 부산체육중 박관우 선수가 62m02를 기록하며 자신의 종전 부산기록(59m11)을 2m91 경신했다. 특히 박관우 선수는 전년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45년 만에 부산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부산기록을 새롭게 수립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 중등부 100mH에서는 대청중 이하니 선수가 14.33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초등부 멀리뛰기에서는 부산초읍초 박정훈 선수가 5m15를 기록하며 깜짝 금메달을 획득, 부산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 결과는 부산광역시육상연맹 회장사인 BNK부산은행의 꿈나무발굴육성 및 장학·대회개최 지원사업과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다양한 유망주 발굴사업,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체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뒷받침된 결실로 평가된다.

02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부산 여자초등부 선발팀, 전국소년체전 단체전 우승



부산 초등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지난 5월 26일 막을 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배드민턴 여자초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선발팀이 전통의 강호 경기선발팀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 2의 극적인 대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산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결승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다. 부산선발팀은 제1단식에서 서예진(구포초)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으나, 이어진 제2단식을 내주며 승부는 1대 1 원점이 됐다. 이어 제1복식에 나선 서예진·김송아(구포초) 선수 조가 2대 0 완승을 거두며 다시 앞서갔지만, 경기선발팀의 반격에 제2복식을 허용해 결국 승부는 마지막 제3단식으로 이어졌다.

최종전의 해결사로 나선 김리아(안남초) 선수는 침착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상대 장유진 선수를 2대 0(21-19, 21-14)으로 제압, 마침내 부산 선수단에 값진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특히 대회 기간 내내 단식과 복식을 넘나들며 전 경기 승리를 이끈 서예진(구포초) 선수는 이번 대회 여자초등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금메달은 부산 배드민턴의 탄탄한 저력과 미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부산 배드민턴인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03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전국소년체전 본대회서 펜싱 우수 성과, 유소년 선수 성장 가능성 입증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의 선발전을 거쳐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 선수로 선발된 유소년 선수들이 본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유소년 전문선수 육성의 성과를 입증했다.

펜싱 종목 개인전에서는 남초 플뢰레 종목에 출전한 감도영 선수가 3위, 여초 에페 종목의 이은상 선수, 남초 에페 종목의 문정현 선수가 각각 3위에 입상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단체전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여초 에페 종목(이은상 출전)은 2위를 기록했으며, 여초 플뢰레 종목(김세은·최은수 출전)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초 에페 종목(문정현·이승현 출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3위를 기록하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 테니스 종목에서는 남자 단체전 8강, 여자 단체전 16강에 진출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인했다. 대회 종료 후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선수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선수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경기 결과를 넘어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유소년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에 힘을 예정이다.

04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부산·경남 아이스하키 연합팀 ‘D-Sports’, 전국아이스하키대회 준우승 쾌거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이 전문 선수반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아이스하키협회, 경남아이스하키협회, 학교스포츠클럽과 협력해 연합팀을 구성하고 전국 대회에 참가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창원데블스, 동성초등학교 선수들로 구성된 연합팀 ‘D-Sports’는 지난 3월 21일 구미 금오랜드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2026 POLARIS CUP : NORTHERN PATH #2’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연합팀 결성은 지역 종목단체 소속팀과 학교스포츠클럽이 협력해 선수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경기 경험을 제공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선수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대회에서 D-Sports는 전국 팀들과 경기를 치르며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선보였고, 3승 1패의 성적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강원도, 경기도 등 타 지역 팀과의 교류 및 경기 참여를 통해 선수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선수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전 경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종목단체 협회 소속팀과 학교스포츠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팀 운영을 통해 선수 육성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체육 퀴즈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1 2002년 결성된 이 학교의 유도팀은 부산에서 유일한 남자 대학부 유도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3 추계 전국대학연맹전 단체전 우승, 2024~2025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 단체전 우승 등 지
금까지 총 21회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며 단체전에서 굵직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 학교는 어
디일까요?

- ① 동서대학교 ② 동의대학교 ③ 동아대학교

2 현대 스포츠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선수의 신체 상태와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경기력 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선수들의 움직임과 신체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
터 시스템으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유니폼 안에 착용했던 검은 조끼
역시 이러한 장치 중 하나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 ① 택틱AI ② 스카우팅어드바이저 ③ 전자 퍼포먼스 추적 시스템(EPTS)

3 우리나라는 훌륭한 스포츠 영웅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인 이 선수는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인입니다.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세계 정상에 오르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 양정모 ② 하형주 ③ 손기정

『부산체육』
제90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① 노희주 : 불더, 노현승 : 리드 2. ③ 러닝 3. ① 롤러스포츠

당첨자

이*욱(9149) 이*원(1501) 정*형(1585) 이*은(4589) 정*담(1581)
신*섭(7371) 손*향(0385) 야*영(7784) 김*선(2920) 노*수(1328)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매트 위에서 만들어가는 성장과 도전 ○○○○ 유도부

<금빛 훈련일지> 8쪽

2
힌트

○○○○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경
기 중 선수들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약 400여 가지 이상의 정보를 기록한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유니폼 안에 착용했던 검은 조끼 역시 이러한 ○○○○ 장치 중
하나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스포츠&테크놀로지> 26쪽

3
힌트

대한민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는 레슬링 종목의 ○○○ 선수이다. 부산 출신 ○○○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와 용두산공원에 놀러 갔다가 인근에 자리한 레슬링 체육관을 우연
히 방문하게 되었고, 레슬링의 매력에 빠져 운동을 시작했다.

<부산체육 DNA> 31쪽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6.6.15.(월) ~ 6.30.(화)

응모 방법

네이버 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92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폼 바로 가기

이벤트 응모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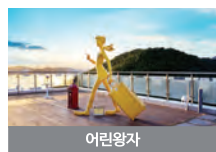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www.eunsan.co.kr

银山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됐다!됐다!잘 된다!더 잘 된다!



회장 양재생



글로벌 종합물류, 은산해운항공

OCEAN CARGO 해상화물 / AIR CARGO 항공화물 / WAREHOUSE 창고보관업 / HOUSEHOLD GOODS 이주화물 / INLAND TRANSPORTATION 내륙운송
EXPORT PACKING 수출 포장업 / LCL CONSOLIDATION LCL 화물 / PROJECT CARGO, HEAVY/BULK CARGO 프로젝트, 중량 / 벌크화물

전 화 : 051-441-9966 / 02-772-9966

팩 스 : 051-441-9969 / 02-773-9969

E-mail : info@eunsan.co.kr



양산터미널



신항만독산터미널



신항만화전터미널



신항만동동터미널



경인터미널



인천국제공항터미널



은산수출포장



은산로직스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 <https://awesomestar.co.kr> |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신일디엔피는 원-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기획에서 인쇄 제작, 배송까지 한번에 처리!

편집디자인, CI, BI 및 인쇄, 제본,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작하는 디자인 인쇄 전문 기업!

Creative Design

편집디자인 / 복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광고디자인 / CI, BI
POP, SIGN

Process Service

그래픽작업 / 스캔
인쇄교정
CTP, 필름출력 등
제작프로세스

Total Printing

인쇄 - 제본 - 배송

Marketing Plan

광고기획 / 매체전략
프로젝트 기획



주식회사 신일D&P
design & printing

광고디자인·인쇄 전문기업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31 501호(신일빌딩) T 051.469.8275 F 051.466.6680



(주)천우테크



대표이사 김상진

최고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금속표면처리기업 (주)천우테크

2001년 케미컬 전문제조회사로 설립되어, 현재 3개의 공장(대불공장, 녹산공장, 천우플랜트)가 있으며 PLAZMA-CUTTING용 ZINC POWDER를 국산화시켜 보급, CW-R2를 개발하여 국내/국제 특허등록 후 PASSIVATION작업의 표준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 및 기술력을 인정, 알루미늄 산세약제CW-AL을 개발하여 안전/품질 우선의 정책으로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SMALL BUT STRONG”한 기업, 고객의 Needs를 만족시키는 필요한 기업, 혁신하는 기업이 되고자 향후 조선산업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나갈 것입니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전화, E-mail,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공장, 팩스, 홈페이지, 사업개시년도.



사업분야 금속표면처리 외 약품개발/설치/크리닝/테스트

Table with 4 rows and 3 columns: Main category (금속표면처리, 보온, 도장, 파이프라인&로봇검사, 기업부설연구소), Image, and Description.

- 회사연혁: 2001. 회사설립, 2006. 대불공장 완공, 2007. ISO 14001:2015, 2011. ISO9001:2015, 201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 2020. 고용노동부장관표창장, 2022. 부산강소기업 선정, 2022. ISO45001:2018

인증 및 수상



- ① 대통령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③ 고용노동부장관표창장, ④ ISO 9001:2015, ⑤ ISO 14001:2015, ⑥ ISO 45001:2018, ⑦ 스타기업선정(강소기업)

올바른 장례문화의 시작

(주)시민장례식장

(주)시민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부조리한 관행 및 관습을 타파하고 '정직한 경영, 투명한 운영, 친절환 서비스'를 목표로 한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계열사 장례식장

- (주)시민장례식장 051)636-4444,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051)896-4444,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051)893-4444

장례전문인력

- 전문 장례지도사, 전문 이송단, 인력 도우미, 장례관련 일체(개장등)

소중한 분이셨다면 특별한 곳에 모셔야 합니다.

* 24시간 무료상담 및 부산관내 무료이송*

(주)시민장례식장 | 24시간 무료상담 | 051-636-44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주)시민장례식장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꿈을 향한 무한 질주 BNK가 응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질주!
그 끝에 전율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BNK부산은행 육상실업팀 최기만 선수 |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